

### 무안 낙지 전용 포장재 생겼다

#### 브랜드관리·부정유통방지

“무안 갯벌낙지 전용 포장재를 꼭 확인하세요!”

무안군이 ‘무안 갯벌낙지’ 브랜드 유지관리와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무안군은 봄철 갯벌낙지 성어를 꺾기 위해 타지역 낙지와 수입산 낙지가 ‘무안낙지’로 둔갑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어업인들에게 갯벌낙지 전용 포장재와 아이스 팩을 공급한다.

군은 낙지를 생산하는 관내 어촌계 26곳을 중심으로 ‘무안 갯벌낙지’ 로고가 새겨진 스티로폼 전용포장재 4만9330개와 아이스 팩 1만5013개를 적기에 공급한다.

군은 ‘무안 갯벌낙지’ 전용포장재와 아이스 팩 공급으로 원산지 허위 표시와 부정유통을 막고 전국적인 택배주문 판매에 따른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 갯벌낙지’는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에서 서식해 육질이 여리고 부드러운 도시 소비자들에게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편 ‘무안 갯벌낙지’의 최근 2년간 생산량은 682에 이르며, 216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렸다.



씨월드 고속훼리(주) 씨스타 크루즈호는 지난 2011년부터 최대 1935명의 승객을 싣고 목포-제주간 항로를 운항하고 있다.

## 크루즈 타고 제주도 가면 경품도 가득

#### 씨스타크루호 취항 3주년

#### 로얄스타 운항 1주년 맞아

#### 고객 감사 대행사 개최

#### 다음달까지 경품응모 진행

목포·해남과 제주를 잇는 항로에 대형 여객선이 투입되며 승객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됐다. 씨월드 고속훼리(주)(대표이사 회장 이혁영)는 지난 2011년부터 목포~제주 항로에 국내 최대·최고이자 초호화 크루즈 여객선인 ‘씨스타 크루즈호(2만4000t급)를, 2013년 3

월에는 해남 우수영~제주간을 오가는 ‘로얄스타호(5000t급) 운항에 나섰다. ‘바다위의 호텔’로 불리는 ‘씨스타 크루즈호’는 여객 1935명과 차량 500대를 적재할 수 있으며, 운항시간은 4시간30분이 소요된다. 선내 고급 객실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개인고객을 비롯해 수화여행과 산악회 등 각종 단체 이용객들의 각광을 받으며 매년 85만여명이 이용하며 해양수산부 선정 2년 연속 최우수 선박의 영예를 얻기도 했다. 이와 함께 ‘로얄스타호’는 여객 1950명과 차량 500대를 선적할 수 있으며 해남 우수영에서 제주까지 2시간30분 만에 주파하는 초 쾌속선이다.

씨월드 고속훼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선박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 해남의 많은 유적지를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도 구입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할인권을 배부해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목포~해남 우수영간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남 우수영 여객터미널 인근에는 명량대첩 유적지인 울뚝목을 비롯해 많은 유적과 관광지가 산재해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씨스타크루호’ 취항 3주년과 ‘로얄스타’ 운항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행사를 연다. 선사는 이용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경품응모로 진행해 1등(1명)에게 웨보레 자동차 ‘스파크’를 준다. 2등(2명)에게는 루이비통

명품 핸드백을, 3등(2명)에게는 루이비통 명품 지갑을 전달한다. 이 밖에도 ▲씨스타크루즈호 스위트룸 왕복 이용권(3명) ▲행운의 열쇠 1돈(30명) ▲씨스타크루즈호 일반실 왕복이용권(50명) ▲롯데백화점 모바일 1만원 상품권(100명) 등 푸짐한 상품이 제공된다. 씨월드고속 이혁영회장은 “이용객들이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가족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전 직원의 다짐”이라며 “불편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씨월드고속훼리는 10년 연속 제주기점 수송물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 대상’을 총 5회 수상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 마을주민들이 자신만의 우편함을 만든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톡톡 튀는 우편함 산뜻한 우리마을

####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마을

“세상에 하나뿐인 우편함입니다.” 지난해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지정된 함평군 대동면 아차동 마을주민들이 최근 서툰 솜씨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색 우편함을 만들었다. 마을 44가구 모두 특색있는 그림을 그려 붙였다. 손자·손녀들과 마당에서 뛰노는 모습, 젊은 시절 지금의 할머니와 오 토바이를 타던 추억 등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들이 우편함을 장식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특히 고령의 마을 주민들은 완성한 그림을 설명하면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고 일평생 가꾸어 온 삶을 되짚어봤다. 권오화(82) 씨는 “우편함에 감나무를 그리면서 짧으나마 젊은 시절 생각이 났다”며 “자식들이 오면 할말이 많겠다”고 즐거워했다. 김진국 아차동마을 추진위원장은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특색있는 우편함 설치사업이 안내 주민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혁기자 hwang@

## 신안군, 폐가전 수거 전남 우수기관 선정

#### 도주관 경진대회서

신안군이 최근 전남도와 한국전자산업환경 협회 주관의 폐가전제품 수거 경진대회에서 전남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서지역인 신안군은 내륙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어려운 교통여건에도 불구하고 폐가전, TV 등 폐가전 제품 3090대를 호남 리사이클링 센터로 운반·처리하는 성과를 거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앞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환경보전을 위해 폐가전제품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불법처리행위 사전예방 활동과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환경부와 전남도, 한국전자산업 환경협회와 함께 도서지역 리사이클링 행사를 개최해 재활용 운동이 일회성이 아닌 생활속의 환경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llse@

## 순창군, UN ISDR 가입신청

(재해경감 전략사무국)

#### 재해방지 캠페인 전개

순창군이 UN ISDR(재해경감 전략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에 가입신청을 했다.

UN ISDR은 지구온난화 등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재해 빈발에 따라 국제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설립한 기구다. 해당 기구는 지난 2010년부터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이번 UN ISDR 가입을 계기로 재해위험 감소, 재해경감 교육과 훈련, 기반시설 개선, 환경·생태계 보호 등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10개 항목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게 된다. 가입 3년 뒤에 활동 내역을 평가받고 결과에 따라 ‘방재 안전도시’로 인증받게 될 경우 소방방재청 주관의 재난관리 실태점검 가산점 부여와 국가예산 확보 용이, 재난·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축적으로 대응역량 강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군은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전국 우수기관(장려상), 재난관리 평가에서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도 전북도 및 중앙에서 평가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우수 군으로 선정돼 다음달 25일 안전행정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 감사패 수상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장이 최근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김정호 회장으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협의회는 “김 의장이 시의회 의장으로 역임하면서 이·통장들과 소통·협력력을 통해 정읍시 이·통장협의회 발전을 기여한 공이 크기에 이·통장 779명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승범 의장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청보리밭

## 봄내음 향긋한 전북축제 오세요

#### 4~5월 9개 개최

#### ■전북지역 봄철 축제현황

기간	축제명	장소
4월 18일~20일	7회 김제 모악산 축제	김제시 모악산 일원
4월 19~5월 11일	11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고창군 학원농장
4월 20일	14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 축제	완주군 대원사 일원
4월 26~5월 25일	20회 지리산 비래봉 철쭉제	남원시 비래봉
5월 1~5월 6일	84회 춘향제	남원시 평안루원
5월 3~5월 6일	2014 전국 한지 문화축제	전주시 한국전통문화 전당
5월 3~5일	3회 부안 마실축제	부안군 부안 스포츠 피크
5월 10~11일	47회 황토현 동학농민 혁명 기념제	정읍시 황토현전적지
5월 10일~11일	익산 서동축제 2014	익산시 서동공원

신록이 짙어가는 4~5월 고창과 남원 등지에서 봄철 축제가 잇따라 개최된다. 전북지역 열리는 봄철 축제는 김제 모악산 축제와 고창 청보리밭 축제, 남원 춘향제, 전주 한지 문화축제, 익산 서동축제 등 9개에 이른다. 김제 모악산 축제는 ‘모악산의 훈, 그 여름을 열다’라는 주제로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김제시 농악대, 모악문화제(사생 및 백일장), 모악산 힐링 콘서트, 모악 순례 음악제 등 다채로운 공연·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축제 사흘째인 20일(문화의 날)에는 ‘모악산 마실길’ 힐링투어가 열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즐거움 청보리밭!’을 주제로 공음면 학원농장에 조성된 100ha의 드넓은 보리밭에서 23일간 개최된다. 축제기간 동안 청보리밭 시골길 자전거 타기를 비롯해 승마체험, 이야기극 보리밭 걷기, 스탬프 릴리 등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올해 남원 춘향제는 행사 하이 라이트인 춘향 선발대회로 시작한다.

공연을 마련된다. 또 관광객 어울 마당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방송해 주는 ‘정보리 방송국’도 운영된다. 1970년대 지리산 비래봉 일대는 면양 목장이 운영됐다. 이때 방목한 면양이 철쭉만 남긴 채 잡목과 풀을 모두 먹어버려 자연스럽 게 철쭉군락지가 조성됐다. 지난해 비래봉 철쭉제는 42만명이 방문해 2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사랑의 기쁨! 그리고 힐링의 발원!’이라는 주제로 철쭉 제와 축하공연, 철쭉 가요제, 사생대회 등이 펼쳐진다. 올해 남원 춘향제는 행사 하이 라이트인 춘향 선발대회로 시작한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이를 통해 예비 춘향후보들의 장기자랑과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대중가수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재미와 호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올해 춘향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관광자원화 사업공모에 선정됐다. 명인·명창 최고의 등용문인 ‘춘향 국악대전’을 비롯해 ‘명인명창 국악대향연’ 등 전통예술 공연과 ‘창극 춘향’, ‘오페라 춘향 갈라쇼’, 최고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세기의 사랑’ 협연 등 클래식과 전통국악, 퓨전국악이 어우러지는 20여개의 크고 작은 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단신

## 전주시 완산도서관 ‘엄마표 학습코칭’ 무료특강

전주시 평생교육원(원장 성하준)은 14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황토현 학당’ 방과후 학교 개강식을 갖는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지도강사와 돌봄 전담인력을 소개하는데 이어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황토현 학당’ 기본 생활방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이번 특강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독서와 자기주도적 공부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자는 서신도서관(아동실)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1-274-4360) /신안=이상선기자 sllse@

## 정읍교육청 ‘황토현 학당’ 방과후 학교 개강식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석문)은 14일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에서 ‘황토현 학당’ 방과후 학교 개강식을 갖는다. 이번 개강식에서는 지도강사와 돌봄 전담인력을 소개하는데 이어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황토현 학당’ 기본 생활방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s@

특히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총괄 계획가로 지정해 급식시설 지원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됐다. 사업예산은 5000만원이며, 국비 50%·도비 10%·시비 40%가 지원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 남원 초동마을 ‘고령자 공동급식 지원 시범마을’ 선정

남원시 이백면 초동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촌 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지원 시범사업’ 마을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마을회관 등지에 조리 및 식사제공을 위한 시설을 개선해 농촌 고령자의 주거·영양·위생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게 된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민의 장’을, 홍준남·조상원씨에게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 고창군 고수·아산면 ‘면민의 날’ 성료

고창군 고수면과 아산면은 지난 11~12일 ‘면민의 날’ 행사를 각각 개최했다. 양 지역 행사는 민민과 출향인 등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체육경기를 비롯해 민속놀이,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아산면은 감계희 전 면장에게 ‘면

민의 장’을, 홍준남·조상원씨에게 체육발전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이강수 군수는 “이번 ‘면민의 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희망이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